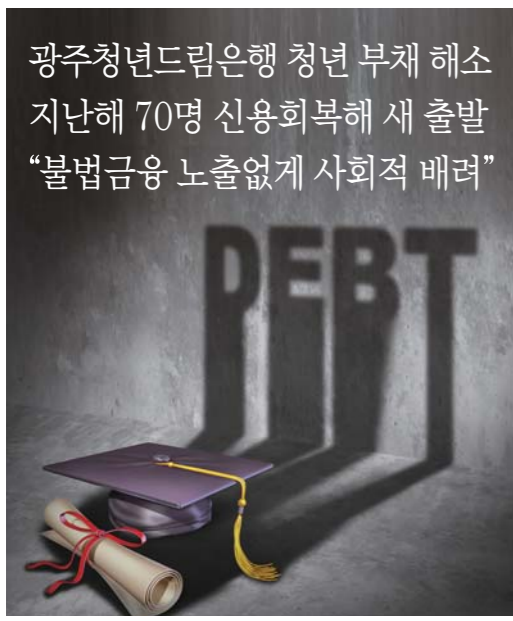


# “빛 때문에 빛을 잃어가고 계신가요?”



광주청년드림은행 청년 부채 해소 지난해 70명 신용회복해 새 출발 “불법금융 노출없게 사회적 배려”

“대부업체도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해요. 하루종일 일했는데 빚만 계속 늘고...”  
경찰공무원을 꿈꾸는 대학생 A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7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쉬어 본 적이 없다. 오전에 아르바이트, 오후에는 독서실 총무로 일했지만, 생활 유지는 쉽지 않았다. 생활비조차 감당할 수 없게되자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하지만 쉽고 편한 현금서비스는 빛이 빚을 부르는 악순환을 초래했다. 독서실 근무시간을 늘리고 새벽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러다보니 몸은 점점 나빠지고 공부는 벅차고 옆친데 못한 격으로 연체가 시작됐다. 아무리 벌어도 빚은 줄어들지 않았고 대중교통비마저 아끼기 위해 무더위에도 자전거를 타고 다녔지만 높은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현금서비스에 대한 후회가 커질 무렵 인터넷 서핑 중에 우연히 접한 ‘광주청년드림은행’은 작은 희망이 됐다. 광주청년드림은행은 채무조정을 통한 부채정리를 권유했고 워크아웃 진행으로 월 상환액의 부담을 줄여 작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했다. 광주청년드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상담을 받은 청년은 425명이고, 이 중 247명이 수 회에 걸친 채무 조정 상담을 완료했다. 청년 부채의 주원인중 하나인 학자금대출로 상담 받은 청년도 38명이다. 광주청년드림은행의 ‘채무조정·연체해소 지원사업’은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하기 어려운 청년들이 신용을 회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만 39세를 대상으로 청년금융 상담, 신용회복기관 연계 등을 제공한다. 또 ‘청년 부채 채무 조정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용회복, 연체 관리 등에 필요한 지원금으로 1인당 최대 80만원을 지원한다. 1차적으로 상담을 받고, 지원 심사, 2차 상담을 거쳐 신용회복·연체예방지원과 3개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지난해 지원금 심사 승인을 받은 121명 중 99명에게 신용회복지원과 연체예방지원 등을 위한 지원금이 지급됐고, 채무조정·연체해소 절차를 밟게 됐다. 그 결과 70명이 신용을 회복했거나 신용회복 예정에 있다. 중도에 포기하는 지원자도 적지 않았다. 채무

조정제도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높은 탓이다. 이들은 자신의 빚을 스스로 갚아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과 회생 및 파산자라는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 법적조치 및 신용 상 제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장기간에 걸친 채무조정에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민 광주청년드림은행장은 “독립해서 생활하는 청년들의 월세, 통신비, 식비 등 한달 고정비만 최소 80만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다수의 청년들, 특히 부모의 지원 없는 청년들은 작은 타격에도 무너지기 쉽다”며 “상담 청년 중 상담수가 불법금융에 노출돼 악순환에 빠진 경우라며 이들을 빈곤층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나비파이’ 인기몰이 (주)광주신세계 지하 1층에 입점한 ‘궁전제과’에서 직원들이 인기 메뉴인 ‘나비파이’를 선보이고 있다. 1973년 4월 문을 연 궁전제과는 광주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으로 맛과 전통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추억을 공유하는 명소로 잘 알려져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 서동 한국아텔리움 에코 아파트 ‘인기예감’

교통·학군·생활환경 우수  
14일 주택 홍보관 오픈 예정

최근 광주지역 아파트 시장이 활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광주 남구 서동2지구에 아파트가 공급돼 주목을 받고 있다. 주인공은 한국건설이 시공예정사인 남구 서동 2지구 한국아텔리움 eco(에코) 아파트. 이 아파트는 남구 서동 60-2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 규모로 들어서게 된다. 특히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형대인 59㎡, 84㎡ 타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총 315세대 중 1차 204세대와 2차 111세대가 우선 공급된다. 남구는 주거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입지가 뛰어나고 각종 개발 호재가 맞물려 있다. 서동과 사동, 월산동 등 인근 재개발이 계획돼 있고 제2순환도로 연장 개통 영향으로 교통환경이 대폭 개선됐다.

지하철역이 멀지 않고 필문대로와 제2순환대로, 고속도로 진입이 용이한 사통팔달의 교통환경으로 도심뿐 아니라 시외 어디로든지 이동이 편리하다. 또 단지 바로 앞에 대성초등학교가 있고 반경 1km 이내에 무진중학교, 석산고 등 남부 명문학군이 인접해 있다. 소풍 및 의료, 문화시설 등 생활환경도 우수하다. 조선대병원과 전남대병원이 인근에 있고 남구청과 서구청, 아시아문화전당,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메가박스, 홈플러스, 이마트, 충장로, 양동시장 등이 인접해 있다. 회사 관계자는 “서동 2지구 한국아텔리움 eco 아파트는 주거와 투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형대로 구성돼 있고 남구 백운동과 서동에 최근 신규아파트 공급이 전무해 인기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한다. 한편, 주택홍보관은 14일 광주 서구 쌍촌동 947-1에 개관할 예정이다. 박석호기자 haita2000@srb.co.kr



## 앞새주·보해 복분자주,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내달까지 10만달러 상당 수출 확정  
매취순·순희 막걸리도 협의 중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 대표 제품인 앞새주와 보해 복분자주가 사상 처음으로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하게 됐다. 12일 1차 물량이 출고된 후 내달까지 2차 물량이 추가로 수출될 예정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 보해양조는 인도네시아로 수출할 앞새주와 보해 복분자주를 이날 출고했다.

1차 물량은 앞새주 2만병 등 3만달러 상당이며, 내달에는 2차 추가 물량이 수출돼 총 10만달러 상당의 제품이 선적될 예정이다. 이번에 수출된 제품들은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한인 마트와 현지시장에서 판매된다. 인구 대국 인도네시아에는 2억 6천만 명이 살고 있으며, 이중 수도 자카르타에는 중국인 화교 약 3천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보해는 자카르타 일대에 사는 화교들에게 보해 복분자주 등 한국 주류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수출을 결정하게 됐다.

지난해부터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준비해 온 보해는 앞새주와 보해 복분자주 이외에도 매취순과 순희에 대한 수출협의도 현지 업체와 진행 중이다. 보해 박찬승 홍보팀장은 “처음에 현지 업체가 요청한 물량은 12만달러 상당이었는데 이슬람 교도들의 금육 기간인 라마단 시기가 10만달러로 일부 줄었다”며 “정식 수출되기 이전에도 보해 복분자주에 대한 수요가 있었던 지역인만큼 지속적인 매출향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2000@srb.co.kr



광주 최대 변화가! 최고 광고효과!  
광주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전광판 광고 (신세계안과 옥탑)

01 광주 최고 유동인구 밀집지역 신세계백화점, U-Square, 광주종합버스터미널, e마트 등	02 광주 최대 광폭대로에 위치 20차선 차량 정체 극심 지역, 57개 버스노선 경유지(광주 최대)
03 무등일보, 뉴시스 뉴스와 생활정보 편성, 높은 주목도!	04 두 개 (무진대로, 죽봉대로) 광폭대로에 노출되는 광고효과 X2

1일 100회, 월 3,000회 노출!! (20초 광고 기준)

- ▶스크린 크기: 13.6m x 7.7m
- ▶해상도: LED풀컬러 국내 최고 화질
- ▶하루 18시간, 20구좌 상업 광고노출
- ▶광고노출 시점: 계약 즉시 가능

믿을 수 있는 그룹의 No.1 광고회사  
SRB 미디어 그룹 SRB에드 문의 062) 510-4650